한국 아빠·프랑스 엄마와 네 아이, 코로나 격리 56일의 기록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세상이 멈추자 일기장을 열었다

정상필 지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일상을 바꿨다. 특정 도시와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았다. 세계가 당면한 지구촌 공통의 화두였다. 자가격리, 국경폐쇄, 확진자는 수시로 듣는 친숙한 용어가 됐다.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사는 이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퇴근하며 발열체크를 한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며 접촉보다는 언택트 일상을 영위한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모습이 아니다. 각국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지구촌 보편적인 모습이다. '사람 사는 모습은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다'는 말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프랑스는 개인의 이동이 보장되는 '자유국가'이다. 인권의 국가이자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예술의 나라이기도 하다. 코로나 시대에도 프랑스는 여전히 개인의 이동과 일상을 보장했을까.

한국 아빠와 프랑스 엄마, 네 아이로 이루어진 가족의 일상을 그린 책이 발간됐다. 정상필 전 광주일보 기자가 펴낸 '세상이 멈추자 일기장을 열었다'가 그것. 파리8대학 불문과를 졸업하고 일간지 기자로 활동했던 저자는 현재 프랑 여성과 결혼해 네 아이 아빠로 살고 있다.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살다 최근 프랑스에 정착해 가이드와 운전을 밥벌이 삼아 사는 저자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일기를 썼다. 이번 책은 56일(3월16일~5월10일) 동안 집안에 갇혀 지낸 일상의 기록인 셈이다.

"15일(일요일)에 종교행사가 제한되면서 성당의 미사가 취소됐고, 16일부터는 생필품을 파는 마트와 약국 등 최소한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모든 상점이 폐쇄됐다. 우리는 학교와 상점들이 닫힌 16일부터 실질적으로 격리 상태에 들어갔다. 일기의 격리 기간(56일)이 프랑스 정부의 공식 격리 기간(55일)과 하루 차이가 나는 이유다."

재활용품으로 만든 해적선과 놀이배.

저자는 우버 기사이며 와이프는 초등학교 교사다. 프랑스 중부 불루아라는 인구 4만5000명이 거주하는 도시. 파리에서 차로 2시간 걸리며, 루아르 강을 따라 고성이 즐비해 여름이면 관광객이 몰린다.

한국 아빠와 프랑스 엄마가 사는 집이라 일상은 두 방식이 상존한다. 특히 육아에서는 그렇다고 한다. 다섯 살인 셋째의 손가락 빨기에 대해 엄마는 스스로 끊을 때까지 놔두자는 입장이다. 아빠는 어떻게든 끝내려 한다.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은 코로나를 겪으며 공감과 공유가 깊어지는 계기가 된다. 특히 56일의 격리를 버틸 수 있게 한 데는 보드게임, 정원 가꾸기, 천 조각 퍼즐이다. 여기에 화상통화와 손편지, 이런저런 취미들도 도움이 됐다.

아이들 또한 격리 생활을 힘겨워하지 않았다. 연극을 하거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레고와 플레이모빌을 했다. 색종이를 접으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중세 기사놀이를 하면서는 역사에도 빠지고 더러는 브라질리언 팔찌를 만들었다.

"붙어 지내기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각자의 공간이나 취미를 존중해주기다. 내가 아이들의 방패를 만들거나 정원에서 잔디를 깎을 때는 다른 모든 일에 대해 깨끗하게 잊고 그것에만 집중을 한다. 그렇게 하도록 상대가 배려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다."

코로나 격리 기간 중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자 정상필씨와 가족들. 〈오엘북스 제공〉

지금은 격리에서 벗어났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졌다. 타인과 교감을 나누는 일상의 중요함을 체득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9월 개학이 가까워지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동의 자유를 얻은 만큼 불안감이 배가되는 일은 코로나 시대의 역설이다.

저자는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다시 갇혀 지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만에 하나, 지난봄의 일이 재연되더라도 인권의 나라 운운하면서 지레 겁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며 "격리의 장점도 상당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으므로, 다시 일기장을 열고, 집안 곳곳을 손질하고, 아이들과 하루종일 부대끼며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일상을 헤쳐갈 것"이라고 말한다.

〈오엘북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안창호의 말

안창호 지음

"우리가 나라를 잃은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였다. 그러하니 나라의 독립은 국민 개개인이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힘을 키워 나가는 방향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그의 말이 주는 울림은 여전하다. 질곡의 시대를 건너온 그의 삶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한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없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 민족이 나갈 바를 제시했던 도산 안창호의 글들을 묶은 책이 발간됐다. '안창호의 말'은 도산의 인간적인 면모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절실한지를 일깨운다.

안창호는 총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실력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심혈을 기울였다. 그가 내세운 방법은 교육이었다. 도산은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강해지는 길은 실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족의 성격을 개조하는 데도 진력했다. 우리의 패망이 근대화되지 못한 민족 내부의 요인들에 의해 기인했다고 봤다. 그는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신념을 견지했다.

도산은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신민회를 결성하고 흥사단을 창립했다. 아울러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 민족교육사업에 주력했다.

〈이다북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비의 분위기

박민정 지음

한국 사회 다양한 여성혐오 양상을 그렸던 박민정 작가. 박 작가는 성폭력과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다뤄왔다. 이번에 펴낸 소설집 '바비의 분위기' 또한 지적이고 생동감 있게 폭력의 문제를 다뤘다.

책에는 현대문학상 수상작 '모르그 디오라마', 젊은작가상 대상 수상작 '세실, 주희', 이 계절의 소설 선정작 '바비의 분위기 등' 일곱 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폭력의 역사와 지형도를 예리하게 짚어내는 서사는 현실문제와 결부돼 우리 시대를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준다.

박 작가는 현대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구글 페이지에서 자료를 찾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곤 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종말 이후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불법 촬영 따위가 인간의 존엄을 영영 파괴할 수는 없으리라고 믿지만(그러려고 하지만) 간혹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만하면."

작가의 말을 떠올리는 것은 이번 소설집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작품집에서 작가는 단선적인 피해자-가해자 선악 구도를 넘어 인간관계에서 작동하는 여러 힘의 작용을 포착한다.

또한 역사적 모티브와 현실의 문제를 병치해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폭력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모르그 디오리마' 작품은 19세기 프랑스에서 구경거리로 전락한 시체 공시소 모르그와 현재 온라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동의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를 연결한다. 여아 낙태의 유구한 역사와 딸이라는 이유로 해외 입양 보내진 자매 이야기이자 여성혐오 문제를 다룬 '신세이다이 가옥' 등도 그러한 범주의 소설이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 차문화 천년의 숨결

김의정·최석환 지음

한국의 차(茶)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 질문은 차를 이야기할 때마다 공공연하게 주고 받는 대화다. '삼국사기'에는 대렴이 당나라에서 차 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파종한 이래 한국 차 문화가 싹을 틔웠다고 기술돼있다.

최근 한국 차의 최초 전래 시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차맥(茶脈)을 담은 '한국 차문화 천년의 숨결'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명원 김미희 탄신 100주년 기념'을 부제로 한 이 책은 김미희 선생의 둘째 딸이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인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과 한국 선차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 온 최석환 선차학자가 펴냈다.

저자 최석환은 지난 20년간 한국 차문화의 자취를 쫓아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등을 오가며 차를 연구했다. 그는 신라왕자 출신인 무상(無相) 선사가 중국에 들어가 선차의 비조가 됐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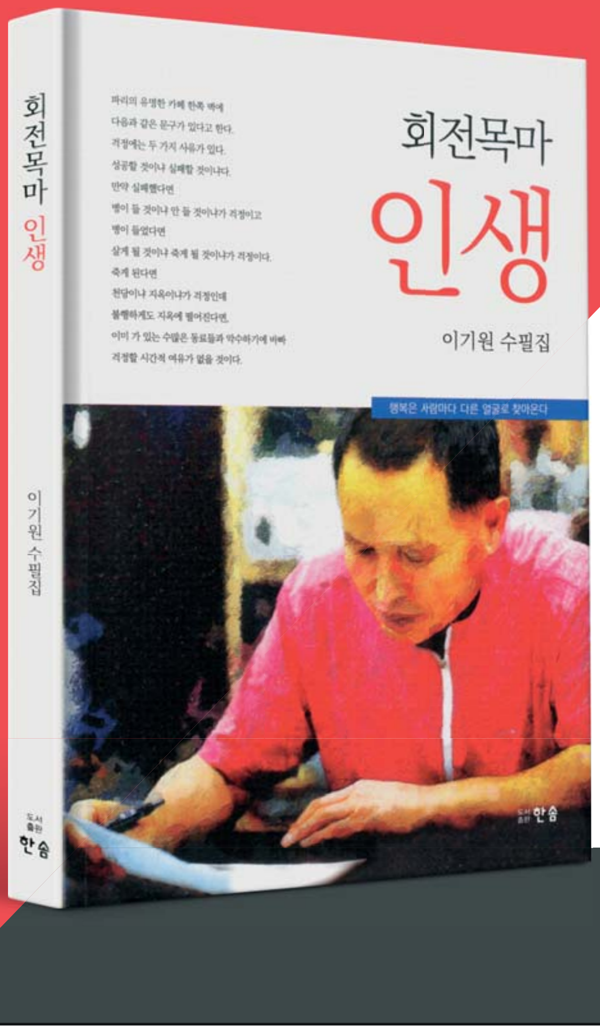
책에서는 한국 차의 최초 전래 시기부터 신라, 고려, 조선, 근·현대로 이어진 차맥을 짚으며, 신라 무상, 김지장, 허황후, 고려의 태고보우(太古普遇), 조선에 초암차를 전해준 매월당 김시습, 조선 후기 초의선사와 이후 명원(茗園)선생까지 다룬다.

특히 책 발간을 계기로 궁중다례와 한국차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명원 김미희 선생을 심도있게 살핀다.

명원 선생은 1960년대 일본 교토의 차회에 참석했다가 '한국에 다도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차 문화 부흥에 앞장섰다. 올해 명원 선생 탄신 100주년을 맞아 적청화경(寂淸和敬) 정신으로 한국 차 정신의 근간을 이룬 명원 선생의 말씀들도 담았다.

〈茶의세계·3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다.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서 점 판 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홍지서림)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